

## 군복의 특징을 활용한 현대 패션액세서리 디자인 개발

-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중심으로 -

장지수·하승연\*†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박사과정,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부교수\*†

### Fashion accessories design development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form

- Focusing on leather handcraft carving techniques -

Renkai Zhang · Seung Yeon Ha\*†

Ph.D.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9. 8. 27 접수; 2019. 10. 25. 수정; 2019. 11. 7. 채택)

### Abstract

Among the many factors affecting fashion trends, the concept of war has been particularly instrumental throughout human history. Specifically, military uniforms worn during the WWI and WWII became popular fashion styles that introduced military uniforms to modern fashion and continue to be influential to this day. And the fashion accessories market is continuously demanding new 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military uniforms have been continued to be influential in contemporary fashion, to apply fashionable features of military uniforms, and to make leather accessories by using leather-carving techniques.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forms were analyzed in advance researc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cases applied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In conclusion, five modern fashion accessories were developed by combining the form, function, and decorative elements of the military uniform that have been constantly reflected in modern fashion with leather handcraft carving techniques. This study is meant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rtistic and original fashion accessories that are both practical and reflect the history of military uniforms.

*Key Words:* military uniform (군복), fashion accessories (패션 액세서리), design development (디자인 개발), leather handcraft carving techniques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

## I. 서론

패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인류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종족의 부족 간 충돌이 생기면서 군대가 생성되었고, 군복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중세와 근세,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

† Corresponding author ; Seung Yeon HA  
Tel. +82-41-850-0291  
E-mail : [hsywings@kongju.ac.kr](mailto:hsywings@kongju.ac.kr)

치면서 여러 가지 변천을 겪어왔다. 군복의 기원은 초기의 인류가 신체의 보호와 연약한 방호력을 보충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물을 사용하여 맹수 또는 적의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였으나(한순자, 이순홍, 2001), 무기의 발달과 전술의 변화는 군복의 형태와 재질, 색,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점차 군인의 권위가 향상되면서, 군복은 과시용으로 발전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최신 무기에 의해 속전속결 전술과 환경을 응용한 전술로 바뀌면서 위장용 군복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한순자, 1997). 이렇듯 군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종류와 기능이 분화되고 보완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군복은 현대 패션 스타일에 영감을 주며 새로운 트렌드의 방향을 만들어 왔다. 최근 현대 패션에서 군복의 형태나 소재, 색채가 디자인의 모티브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지만, 군복의 디테일과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현대 패션에서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통해 도시적 이미지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있다.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1940년대 밀리터리 트렌드는 1960년대의 직선적인 실루엣에 견장 디테일 등으로 장식적 요소를 가미한 쿠레주 풍의 스타일로 변모하였고, 1990년대에는 H라인 스커트 수트에 더블 브레스티드나 골드 브라스트 버튼을 디테일로 응용한 재킷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의 밀리터리 트렌드는 도시적인 감성이 강해지면서 소프트해지고 캐주얼 화되는 경향으로 강조되었다(Elle Korea, 2010). 군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미(1996), 김지영(1997), 광현주(1999), 윤경은(2004), 이서희(2011)는 군복의 이미지를 응용하여 현대 여성복 패션에 적용하였고, 성혜정(2014)은 독일 군복의 특성을 도출하고 당시 군복에 사용되었던 펠트를 이용하여 여성복의 디자인 요소로 개발하였다. 배주영(2009)은 제1차 세계대전 시 영국군 트렌치코트의 디테일을 응용함으로써 기능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갖춘 남성복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산업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와 디자인으로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패

션 액세서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패션 액세서리는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며, 패션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액세서리의 트렌드에도 밀리터리 스타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군복의 요소를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연구는 군복의 조형미를 재해석하여 현대 여성 구두 디자인으로 제안한 김현정(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현대인들의 패션에 대한 표현적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독특하고 개성 있는 패션 액세서리의 차별화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복의 특징을 활용한 현대 패션액세서리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 모티브로서 1, 2차 세계대전 군복의 형태와 디테일에 집중한 이유는, 오랜 군복의 역사 속에서 1, 2차 세계대전 군복이 가장 화려하고 기능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이며, 현대 패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헌을 통해 군복의 개념과 역사를 조사하고, 군복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현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복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밀리터리 트렌드를 반영한 20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현대 패션 컬렉션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복의 특징을 연구결과인 작품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이용하여 개성 있고 차별성 있는 현대 패션액세서리 5점을 개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군복의 개념과 역사

군복은 광의적 의미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쟁 시 싸움에서 입었던 옷에서 디자인을 응용한 모든 종류의 복식을 의미하며,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직선적, 기능적, 활동적인 실루엣에 견장이나 블레이드, 금속버튼 등으로 군복의 요소들이 강조된 옷을 일컫는다(Calasibetta, 1990). 또한 한순자(1997)의 연구에 의하면, 군복은 전투용과 의전



〈그림 1〉 중세의 쇠사슬 갑옷

Weapon : a visual history of arms and armor. p. 93



〈그림 2〉 중세의 전신판금 갑옷

Weapon : a visual history of arms and armor. p. 91

용의 개념에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투용은 전투력을 위한 기능성과 방어성을 목적으로 입었고, 의전용은 계급을 통한 위계의 표현과 장식성을 목적으로 입었다. 즉 군복은 전투 시에는 전투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능성이 당연히 중요시되지만, 평상시나 일상적으로 전투를 위한 훈련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시와 위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장식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1)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Rameses, B.C. 1303-1213) 왕은 전차를 타고 짧은 소매가 달린 비늘 모양의 갑옷과 하트모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힌 쉐도트(shendot)를 입었고 뺨을 장식한 청색의 투구(helmet)를 쓰고 긴 자루의 도끼와 조봉을 들고, 허리에는 금속 벨트를 하고 뒤로는 사자꼬리를 늘어뜨렸으며 신발은 앞이 올라간 샌들을 신었다. 신왕국 시기의 작은 쇠조각들로 만든 쇠비늘 갑옷은 유연성이 있고 가벼웠으나 비싸기 때문에 전차병들만 입을 수 있었다(Montgomery, 1968/2004). 그리스의 군복으로는 병사들이 갑옷 속에 가죽으로 만들어진 페플로스(peplos)를 입었고, 모든 군인들이 계급과 병종에 따라서 클라미스(chiamys)를 다양하게 입었으며 점차 동양의 영향을 받아 염색과 많은 장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실 예복이 되었다(Black, 1980/1997). 그리고 로마의 군복은 B.C. 4세기경부터 짧은 튜닉 위에 금속판의 가슴 가리개와 등받이로 구성된 흉갑(cuirass)을 입었고(신상옥, 1990), 공화정 시대의 창기병들은 값비싼 쇠비늘 갑옷 코트를 입었으며, 이 쇠비늘 갑옷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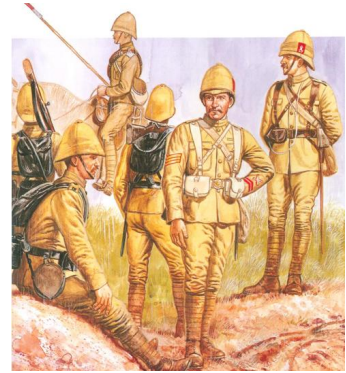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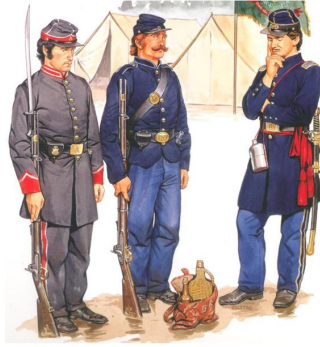
시대까지 착용되었다(Montgomery, 1968/2004). 또한 제정시대에는 가슴을 보호하는 두개의 큰 금속판을 어깨위로 철로 된 긴 밴드로 연결하고 허리를 둘러싼 형태의 로리카(lorica)라는 갑옷을 입었다. 한편 로마의 시민병 군대는 각자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준비하였는데, 튜니카(tunica)를 입고 그 위에 토가(toga)나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을 착용하였다(한순자, 이순홍, 2001). 로마 군인은 지휘관의 계급을 구별하기 위해 벨트를 사용하였는데, 황제와 고급 관료들은 버클이나 금속판이 달린 가죽 벨트를 착용하였다.

2) 중세

중세 초기의 유럽은 각 민족에 따라 고유한 복식이 있었으나 북방 민족의 기본 복식이 군복으로 개선되었다. 중세 중·후기에는 봉건제도와 기병 중심의 전쟁을 하면서 기사들의 가문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군복을 치장하였고, 무기에 대응하여 금속 갑옷이 발전하였다. 중세의 금속 갑옷은 기병의 전관용 갑옷뿐만 아니라 신분의 표현으로 사용하였다(Boucher, 1987). 초기에는 마주 보고 접전하면서 창 의 직접적인 타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쇠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타격에 강한 쇠비늘 갑옷을 입었으나, 점차 기사들은 블리오(bliaud) 위에 간편한 갑옷인 브로네(broigne)와 저킨(jerkin)을 입거나 쇠사슬 갑옷(chain mail haubeit)을 입었다(그림 1). 이 옷은 앞뒤에 트임(slit)이 있어서 말 타기에 편하게 되어 있었으며 수대를 매고 블리오 위에 칼을 찼다. 〈그림 2〉의 판금 갑옷(plate armor)은 13세기 말 딱딱한 쇠조



〈그림 3〉 18세기 영국 총병 및 장교



〈그림 5〉 19세기 영국 보병

Warriors: Fighting men and their uniforms. p.178

각이나 쇠판으로 쇠사슬 갑옷을 부분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취약한 팔다리 부분에 강철판을 덧대고 천에 쇠조각들을 단 철판 겹옷으로 몸통 부위를 보강하여 좀 더 방호적인 갑옷으로 만들었다(한순자, 이순홍, 2001). 전신판금 갑옷(full plate armor)은 14세기부터 나타났는데, 동양의 영향으로 칼이 길고 예리해졌고 가까이 접전을 하게 되면서 무기의 날과 끝이 미끄러져서 비켜 가도록 만든 철판 갑옷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중세 후기에는 화약무기인 총포의 출현으로 방어적인 갑옷보다는 기동성이 있는 갑옷이 필요하였고, 화기를 다루기 위해서 가벼운 옷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전계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 결과 중세의 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병 중심의 전투체제가 되면서 전장에서 기병의 위치와 역할이 약해지고 방어력이 큰 갑옷보다 기동성을 높여주는 옷으로 바뀌었다(Eyewitness visual dictionary,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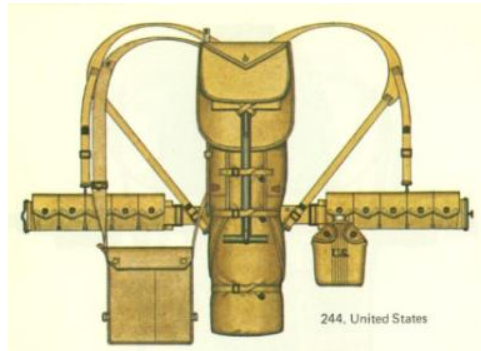
### 3) 근세와 근대

16세기 중반부터 일부 군대는 통일된 색상의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계급의 표식을 위한 배지 등은 아직 없었고 장교들은 어깨에 견장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시하였다. 이 당시 통일된 군복은 하나의 혁신이었으며, 이후 국가들은 통일된 군복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와 직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갖추어 갔다(한순자, 이순홍, 2001). 17세기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전

쟁으로 전 유럽이 치열하게 싸웠던 30년 전쟁(1618-1648)과 영국 내전(1642-1649) 등이 있었다. 이 시기의 군복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퍼프와 패드 등 장식을 없애고 디자인이 단순해지면서 실용적이고 간편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 시기의 군복 변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력이 증대되면서 대규모 군대가 필요하게 되면서, 군대를 통솔하고 사기와 규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일된 정규 군복이 필요하였다. 계급의 활용을 위해서 견장을 도입하고, 군대의 사기를 위해 군복이 장식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대규모 군대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통제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군복은 기능성 보다 상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Montgomery, 1968/ 2004). 18세기 군인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군복을 입었다. 이 당시 유럽은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값싼 원료의 수급이 좋아지자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기계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였으며, 염료의 품질 개선으로 화려한 색채의 직물을 이용한 군복이 제작되었다. 사회적인 면으로는 모병 수단으로 군복을 이용하였다.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병역제를 실시한 나라는 거의 없었으나, 국가가 대규모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화려한 군복은 전시효과로써 지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전술적인 면으로는 화려한 원색의 군복은 적의 눈에 잘 띄게 되어 과시와 경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원색의 군복은 눈에 잘 띄고 확장되어 보이므로 아군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강한 원색의 군복은 혼전 속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수단이



〈그림 6〉 영국 소장  
Uniforms of World War II, p. 24



〈그림 7〉 미국 벨트류와 서스펜더  
Army uniforms of World War I, p.96.



〈그림 8〉 독일 샘브라운 벨트  
Uniforms of the third reich, p.51

되었다(Black, 1980/ 1997)(그림 3).

19세기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이후 부터는 화려한 원색의 군복이 없어졌다. 총의 길이가 짧아지고, 후장식과 연발식 총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군인들은 은닉이나 위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호색을 지닌 군복이 안전하게 되었다(한순자, 이순홍, 2001). 종래의 밀집 행진을 하는 전투대형이 사라지고, 보병들이 은닉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각개 전투 방식으로 바뀌자 원색의 군복은 사라졌다. 〈그림 4〉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병사 모습이다. 한편 칙칙한 땅 색상과 유사한 베이지색 전투복이 위장효과가 높고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아 편리하였다(그림 5). 보호색을 지닌 군복은 1846년 영국군이 처음 입었는데, 인도의 펀잡(Punjab)주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더운 기후의 지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면직물의 색상을 착안하여 제작하였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김화선, 1985).

#### 4) 현대

1차 세계대전은 군복 발달사에 혁명적 계기가 되었다. 군대는 점차 장기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동성을 좋게 하고 야전 시 필요한 소지품을 장비하기 위해 작업복 형태의 옷이 필요했다. 즉 1차 세계대전은 포격과 독가스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기병이나 보병이 참호 속에 숨어서 적과 싸우게 되는 교착 상태의 참호전으로 바뀌면서 권위적, 장식적이며 적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호전적인 이미지의 군복이 사라지고, 추위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기능주의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군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1,2차 세계대전의 군복 형태는 활동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 동안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기 위해 주머니를 많이 달았다. 특히 트렌치코트(trench coat)는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두꺼운 모직물로 방한과 방수를 위해 만들었고, 많은 장비들을 넣어 다니기 위해 상의에는 보통 뚜껑과 단추가 달린 네 개의 큰 주머니가 있었다. 아울러 1915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유럽 군대는 영국군과 비슷한 색상과 디자인의 군복으로 통일되었다. 이것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 공업국이 군복을 생산하여 경쟁적으로 연합군을 원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Mollo, 1977). 〈그림 6〉은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소장의 군복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에는 위장무늬 전투복이 도입되었다(권상희, 하지수, 2005). 위장무늬는 정찰을 위해 탱크, 비행기, 배 등을 주위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군복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16년에 독일군이 녹색, 갈색, 회색의 조각 무늬를 헬멧에 칠한 것으로 부터였다. 독일군은 위장 군복으로 전쟁 시 부상자를 15% 정도 줄일 수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장무늬를 사용하였다(Chris, 2002).

1,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은 액세서리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병사들은 보통 벨트류, 지갑, 가방 등으로 기동성을 고려하여 신체를 편리하게 하는 기능적인 군복 액세서리를 이용하였다. 벨트는 총탄약을 보관하고, 가방은 생명 구조에 필요한 약품을 챙기고, 군인들에게 최대한 활동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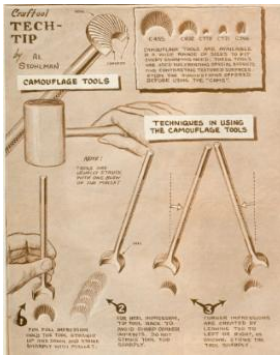
력을 부여함으로써 군복 액세서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 점차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투를 멈출 때 향수병을 앓거나 집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을 생각할 때 지갑에 숨긴 사진은 전투 중간에 잠시 안정을 취하고 심리적으로 이완을 시켰다. 군복에 많은 양의 실탄을 소지하기 위하여 가방과 함께 허리에 매는 벨트류와 이와 연결되는 서스펜더(suspender)가 개인 장비로 등장하였다(그림 7). 특히 샘 브라운 벨트는 사파리 군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반대편 허리 쪽으로 사선 형태의 가느다란 어깨띠가 보조로 곁들여진 허리 벨트이다(그림 8). 고안자인 영국의 사무엘 브라운(1824-1901) 장군의 이름을 따서 '샘 브라운 벨트'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벨트의 폭이 넓고 기죽 재질로 만들었으며, 각 국의 장교 복장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샘 브라운 벨트는 현대 패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변려화, 2013). 뿐만 아니라 고대 전투에 사용되던 철모가 현대전에서 총탄의 방어를 위해 활용되었다. 소총과 대포가 정교해짐에 따라 총탄에 머리를 관통 당하거나 포탄의 파편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모든 군대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철모를 쓰게 되었다(한순자, 이순홍, 2001).

## 2. 군복의 특징

군복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보호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활동에 대한 기능성과 인체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경희 외, 1990). 군복의 요소가 활용된 디자인이 끊임없이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복이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기능성과 활동성에 부합되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자유로움의 표출이라는 미적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군복의 특징으로 인하여 군복은 현대 패션의 스타일과 디테일에 영향을 미치며 유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군복의 장식성은 군인의 권위와 절대복종이라는 군사조직 본연의 성향을 대변하는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통해 일반인과 차별된 신분과 특권 의식을 드러낸다(윤경은, 2004). 이와 더불어 군복의 훈장, 견장, 문장 등의 장식들이 현대 스트리트패션에 실용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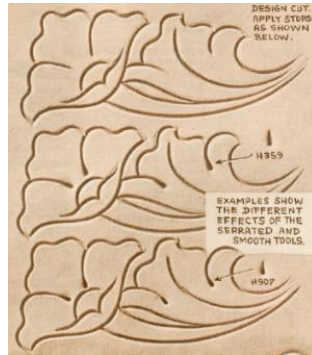
면서도 남성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홍승완, 2007). 특히 훈장과 견장은 군복의 장식 중에서도 위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복에 부착된 훈장은 전쟁에서의 무훈과 업적을 나타내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견장의 원래 목적은 검으로부터 어깨를 보호하는 역할이지만, 계급이나 부대, 군대의 역사 등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장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넓고 각진 어깨를 더욱 강조하여 위엄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다(윤경은, 2004).

군복의 특징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영(1997)은 그의 연구에서 군복의 특징을 위엄성과 기능성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곽현주(2000)는 군복의 일반적 특징을 기능성, 장식성, 위엄성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장식적 특징을 디테일과 트리밍, 색채로 세분하였다. 군복의 장식적 특징을 다시 포켓, 벨트, 배찌 또는 완장, 엠블럼으로, 그리고 트리밍은 금속 징과 배색 테잎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윤경은(2004)은 군복의 특징은 현대 패션의 큰 흐름인 기능성과 활동성에 부합하므로 현대 패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군복의 조형적 특징을 형태,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로 분류하였다. 한편 김현정(2006)은 군복의 특징을 기능적 특징과 장식적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적 특징이란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함께 땀 흡수성, 보온성, 통기성, 안전성, 활동성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장식적 특징이란 통일된 군복을 입음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과 함께 타 집단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홍승완(2007)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군복의 조형적 특징을 기능적 특징, 장식적 특징, 색상 및 문양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배주영(2009)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군복의 특징을 형태와 디테일의 응용, 색채 및 소재의 응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윤제성(2013)은 군복의 일반적인 특징을 상징성, 기능성, 동조성, 위엄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서희(2011)는 군복의 특징을 현대 패션에 적용한ミリ터리 룩의 특징을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조한 디자인, 저항패션에서 변화한 패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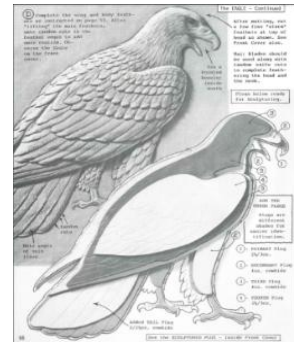
〈그림 9〉 스윗빌카터기법

Crafttool tech tips, al stohlman, p.8



〈그림 10〉 스탬핑기법

Crafttool tech tips, al stohlman, p.2



〈그림 11〉 엠보싱기법

The art of embossing leather, pp. 56

이템, 내추럴리즘과 인간공학적 설계의 기능적인 특징이 스포츠 캐주얼웨어 트렌드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다. 위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군복의 일반적인 특징을 종합하면, 기능성이 가장 두드러지며, 장식성과 위엄성이 그 뒤를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복의 장식성과 위엄성을 유사한 의미로 간주하여, 군복의 특징을 기능성과 장식성으로 보기로 한다.

### 3.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에 따른 작품 제작에 있어서 제작 방법은 디자인, 문양, 작가의 편에 따라 순서가 바뀌지만, 대체적으로 ① 플랫 모델링기법(Flat modeling) → ② 스윗빌카터기법(Swivel modeling) → ③ 스탬핑기법(Stamping) → ④ 캐빙기법(Carving)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은 가죽이 갖는 가소성의 성질을 수분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죽에 물주기를 우선으로 시작하며, 도구를 이용하고, 가죽의 동일 면적에 7~8회의 반복적인 기법 활용이 가능하다. 스윗빌카터기법은 스윗빌터카터라고 하는 회전칼을 사용하여 수분 함유된 가죽에 흔적을 주는 기법으로, 회전칼의 경사 각도에 의해 여러 가지 선과 면의 모양이 생기고, 디자인의 윤곽선에 따른 부조적 표현에 용이하며, 회전칼에 주어진 힘에 따라서 가죽의 파여진 흔적의 깊이나 반부조적인 조형이 다양하게 표현된다(그림 9). 스탬핑 기법은 가죽에 각인을 하는 기법

으로 디자인상의 문양 표현이나 배경 등 면부분의 장식적인 부분에 쓰이는 매우 화려한 기법이다(그림 10). 엠보싱 기법은 릴리프의 일종으로 얇은 가죽의 확장성을 이용한 기법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부조된 형을 만들어 형태를 고정, 유지시킴으로써 다양한 엠보싱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용될 가죽은 1.8mm의 두께로 두꺼운 것이 좋다(그림 11).

문양을 넣을 때에는 가죽에 물주기를 한 후, 디바이더나 자를 사용하여 안내선을 표시하고, 안내선 혹은 면적을 따라 장식한다. 장식하기에 앞서 캐빙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가죽 표면의 디자인 선에 따른 모데라를 사용한 후에 경사진 도구를 사용하여 윤곽선의 안과 밖 쪽을 낮게 하여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법과 모데라의 사용 후에 회전칼을 사용하여 캐빙을 용이하게 표면 처리를 한 뒤, 캐빙의 2차 작업에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사용된다. 디자인 선의 윤곽선의 사용 시에는 안을 뺀다는 방법과 디자인의 밖을 뺀다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모든 디자인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후자는 스탬핑기법의 전·후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문양 장식의 방법은 꽃잎, 가지, 배경 등의 필요에 따라 마무리 장식을 더하게 되는데, 장식 넣기는 한쪽은 선명하고 반대편은 희미하게 치며, 전체적으로 앞줄기에 울동적이고 촘촘하게 치는 것이 좋다. 바탕 무늬의 백툼은 강한 뺀을 표현하는 톨로 끝이 예리한 요철을 가죽에 넣을 수 있다. 이때의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백툼을 사용하

여 댁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면 눌러 주는 것과 디자인 선에 댁하고 나머지는 문양틀로 장식적인 배경 처리를 한다. 이렇게 조각과 더불어 마무리 장식으로 다양한 틀을 사용해 작가의 미적 감각으로 장식을 한 후에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이 끝난 디자인에 최종적으로 스윗빌카터로 강한 악센트를 추가하여 부조 기법은 마무리된다.

염료는 색과 함께 외관 감각도 변함없이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좋으며, 기본 색감만 준비하여 서로 섞어 원하는 색을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다른 염료의 혼합 사용은 염료끼리의 응고나 기타의 이상이 생기므로 같은 염료끼리의 혼합이 적당하다. 안료는 염료에 비해 불투명하고 은폐력이 크다. 특히 염료와 다르게 두껍게 바르면, 가죽의 표면이 보이지 않고 속에 침투가 되지 않으므로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기본이다(박은경, 2002).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범위 및 대상

현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복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20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구글 사이트([www.google.co.kr](http://www.google.co.kr))에서 '밀리터리(military)' 키워드를 입력한 후 패션 스타일을 검색한 결과, 밀리터리 스타일을 발표하는 디자이너가 검색되었고, 총 20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디자이너는 Alyx, Balmain, Berthold, Burberry, David Koma, Dolce & Gabbana, Dries Von Noten, Fendi, Gucci, Loewe, Marc Jacobs, Martin Margiela, Prabal Gurung, Prada, Peter Pilotto, Sacai, Valentino, Versace, Vetements 이며, 이들 디자이너의 컬렉션 사진자료를 보그 코리아(<http://runway.vogue.co.kr>)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연구범위는 여성복 컬렉션 중 2015년 S/S 시즌부터 2019년 F/W 시즌이며, 총 181장의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디자인 개발을 위한 모티브를 1,2차 세계대전에 집중하여 수집한 이유는 오랜 군복의 역사 속

에서 현대 패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전쟁 중 하나로서, 군복이 가장 화려하고 기능적으로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이며, 연구결과를 패션엑세서리로 한정하고, 실물로 제작한 구체적인 아이템은 지갑, 벨트, 어깨 갑옷, 가방, 조끼로 총 5점을 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독일 군복의 예복 조끼와 견장, 프랑스 육군 군복의 케이프, 독일 군복의 샘브라운 벨트, 독일 군용 지도가방, 미국 군용 가방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의 형태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독일 군복 소매의 독수리 문양과 에텔바이스 문양, 상수리 나뭇잎으로 장식된 철십자 훈장, 노르만디 미국 101 공수사단 군복 전용의 독수리 머리 문양, 영국 군사장 군복 소매 문양의 장미 문양, 중국에 군대를 지원한 미국 플라잉 타이거스 P-40 전투기 대대의 비행기에 있는 호랑이 문양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테일을 완성하였다. 이 외에도 군복에 나타난 문자들을 이용하였다. 색채는 가죽 재료의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 2. 제작과정

군복의 특징을 활용한 패션엑세서리 제작을 위한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의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하는 형태를 재단한다(그림 12). 둘째, 디자인의 스케치 작업이 끝난 후, 원하는 크기만큼의 그림을 트레팔지 밑에 두고 디자인을 옮긴다(그림 13). 셋째, 트레팔지에 옮겨진 디자인을 가죽에 옮기기 위해 가죽에 수분을 주는데, 가죽은 수분 증발이 빨라 마르기 전에 얼룩지므로 신속히 고르게 바른다(그림 14). 가죽에 물주기 단계는 가죽수공예기법이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필수 조건이다. 넷째, 스윗모델링을 이용하여 젖은 가죽위의 트레팔지에 힘주어 눌러 디자인을 옮긴다(스윗모델링기법)(그림 15). 다섯째, 디자인상의 장식선이나 조각선 등에 조각하기에 용이하도록 스윗빌카터로 칼집을 낸다(스윗빌카터기법)(그림 16). 여섯째, 다양한 문양 도구를 사용하여 망치로 세계 쳐서 의도된 디자인에 따른 부조적 장식을 한다(스탬핑기법)(그림 17). 일곱째, 전체 디자인 선의 스윗빌카터된 부분에 조각 틀을 대고, 조각 망치로 두드려 점진적으로 연속 이동하여 조각한다(캐빙기법)(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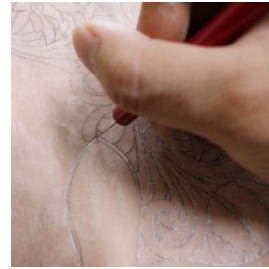
〈그림 12〉 재단



〈그림 13〉 밑그림



〈그림 14〉 가죽에 물주기



〈그림 15〉 스윗모델링기법



〈그림 16〉 스윗카터기법



〈그림 17〉 스템핑기법



〈그림 18〉 캐빙기법



〈그림 19〉 채색단계



〈그림 20〉 러브염기법



〈그림 21〉 채색 완성단계



림 18). 여덟째, 주로 스템핑기법이 활용되어 음각된 부분에만 세필을 사용해 염착되도록 짙은색으로 채색한다(그림 19). 아홉째, 염료를 문힌 솔로 양각 부분을 문질러 채색한다(러브염)(그림 20). 열번째, 주변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염료를 신속하고 고르게 채색하며, 가죽보호제를 거즈에 묻혀 골고루 칠해 준다. 같은 부분을 칠할 때는 반드시 염료가 마른 후에 해야만 용액이 서로 엉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그림 21).

#### IV. 연구결과

#####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군복의 특징

현대 여성복 컬렉션 2015년 S/S 시즌부터 2019년 F/W 시즌까지의 181장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군복의 조형적 특징은 군복의 형태를 이용한 스타일, 기능적인 군복 액세서리를 이용한 스타일, 장식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군복의 특징이 가장 많이 보여졌고, 2017년, 2019년, 2015년, 2018년 순으로 나타났다. 시즌별로는 S/S 시즌보다 F/W 시즌에서 군복의 특징이 많이 보여졌다. 디자이너로는 Sacai(29점)의 컬렉션에서 군복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Fendi(18점), Dolce & Gabbana(17점), Marni(16점), Loewe(14점), Dsquarede2(11점), Marc Jacobs(9점), Versace(9점), Prada(8점), David Koma(7점), Tommy Hilfiger(7점), Vetements(7점), Alyx(6점),

〈표 1〉 군복의 특징이 나타난 현대패션

연도별 S/S시즌	총수	디자이너별 작품수	연도별 F/W시즌	총수	디자이너별 작품수
2015 SS	18	Marc Jacobs(9) Gucci(4) Vetements(3) Dolce&Gabbana(2)	2015 FW	20	Marni(4), Sacai(4) David Koma(2) Vetements(4) Tommy Hilfiger(1) Dsquared2(5)
2016 SS	6	Versace (6)	2016 FW	43	Prada(8), Dsquared2(5) Dolce&Gabbana(6) Tommy Hilfiger (6) Burberry(4), Loewe(3) Marni(3), Gucci(2) Valentino(4), Versace(2)
2017 SS	21	Marni(5), Sacai(5) Dolce&Gabbana(6) Loewe(3), Versace(1) Dsquared2(1)	2017 FW	23	David Koma(5), Fendi(5) Sacai(5), Loewe(3) Dolce&Gabbana(3) Prabal Gurung(2)
2018 SS	5	Loewe(4) Prabal Gurung(1)	2018 FW	9	Marni(3), Loewe(3) Fendi(2), Dries Van Noten(1)
2019 SS	24	Alyx(6), Berthold(4) Fendi(11), Loewe(1) Dries Van Noten(2)	2019 FW	17	Sacai(13) Balmain(4)

Gucci(6점), Balmain(4점), Berthold(4점), Burberry(4점), Valentino(4점), Dries Van Noten(3점), Prabal Gurung(3점)에게서 군복의 특징이 보여졌다. 이들 군복의 특징이 181장 컬렉션 사진자료를 연도별, 디자이너별로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앞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군복의 기능성, 장식성 특징을 중심으로, 수집된 컬렉션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장교 코트와 재킷, 비행기 점퍼 등 군복의 형태를 이용한 스타일이 140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방, 벨트, 서스펜더, 방독면, 커다란 포켓 등 군복 액세서리의 형태와 기능성이 부각된 스타일이 38점으로 나타났다고, 훈장, 견장, 문장 등 계급의 상징적 역할과 권위를 나타내었던 군복의 장식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스타일이 군복 액세서리의 기능적 스타일과 동일하게 38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군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의 형태를 이용한 스타일로서 역삼각형 구도의 넓은 어깨와 가슴을 부각시킴으로써 위엄과 권위를 표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군복의 형태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이템으로 트렌치코트와 사파리재킷, 비행기 재킷 등이 보여졌으며, 포켓을 강조한 스타일도 많이 보여졌다. 〈그림 22〉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장교 코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Prada의 2016년 F/W 컬렉션이며, 〈그림 23〉은 군복의 케이프를 응용한 Dsquared2의 20016년 F/W 컬렉션이다. 군복 중에서도 비행기 재킷의 형태적 요소가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David Koma의 2017년 F/W컬렉션(그림 24)과, Sacai의 2019 F/W컬렉션(그림 25)이 있다.

둘째, 군복 액세서리의 디테일과 기능성이 부각된 스타일로서 군복의 액세서리와 디테일들이 고유의 기능성과 함께 일반 패션과는 다른 차별성과 조형적 독특함을 나타내었다. 군복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능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성의 필요는 벨트, 군용가방, 군모, 군화 등 군복 액세서리로 강화되었다. 벨트는 재킷과 코트 위에 착용하는 군복의 중요한 액세서리로서, 군복의 원



〈그림 22〉  
Prada 2016 FW



〈그림 23〉  
Dsquared2 2016 FW



〈그림 24〉  
David Koma 2017 FW



〈그림 25〉  
Sacai 2019 FW

<http://runway.vogue.co.kr>



〈그림 26〉  
Prada 2016 FW



〈그림 27〉  
Valentino 2016 FW



〈그림 28〉  
Fendi 2019 SS



〈그림 29〉  
Loewe 2017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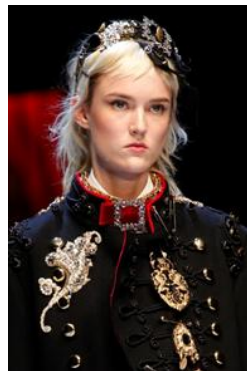
<http://runway.vogue.co.kr>



〈그림30〉  
Gucci 2015 SS



〈그림31〉  
Dsquared2 2015 FW



〈그림32〉  
D&G 2016 FW



〈그림33〉  
D&G 2017 SS

<http://runway.vogue.co.kr>

단과 같은 소재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형태도 매우 다양하며, 보통 허리에 고정하는 벨트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어깨에 걸치는 보조

벨트가 곁들여지는 샘브라운 벨트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림 26〉과 〈그림 27〉은 샘브라운 벨트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표 2〉 작품구성

연번	기능성	사진자료	장식성	사진자료	작품사진
작품 I	독일군 M35 지도가방		독일 에텔바이스 + 철십자훈장		
작품 II	독일군 샘브라운 벨트		독일 철십자훈장의 상수리 나뭇잎 문양		
작품 III	미군 군용가방		미군 101 공수사단 독수리 문양		
작품 IV	프랑스 육군소대장 군복의 케이프		독일 에펠렛 + 영국군사장 장미 문양		
작품 V	독일군 에복조끼와 단추		미군 플라잉 타이거즈 + 독일군 에텔바이스와 흉부 문장		

Prada의 2016년 F/W컬렉션과 Valentino의 2016년 F/W 컬렉션이다. 〈그림 28〉은 군복의 포켓 디테일을 여성적으로 해석한 Fendi의 2019년 S/S컬렉션이며, 〈그림 29〉는 군복의 벨트를 응용한 Loewe의 2017년 S/S 컬렉션이다.

셋째, 군복의 장식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스타일은 포켓, 벨트, 군용가방, 군모,견장, 문장, 배지, 브랑드브르 등으로 상징성을 나타냈으며, 금속징과 배색테이프 등의 트리밍으로 현대 패션에

적용되었다. 한편 군복의 화려한 색채가 장식적 특징이므로써 나타난 사례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30〉과 〈그림 31〉은 배색 테이프가 장식된 군복을 응용한 Gucci의 2015년 S/S 컬렉션과 Dsquared2의 2015년 F/W 컬렉션이다. 〈그림 32〉와 〈그림 33〉은 군복의 훈장 디테일을 활용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여성의 위엄성을 강조한 Dolce & Gabbana의 2016년 F/W 컬렉션과 2017년 S/S 컬렉션이다.



〈그림 34〉 작품의 앞면



〈그림 35〉 작품의 뒷면



〈그림 36〉 작품II의 앞면



〈그림 37〉 작품II의 뒷면



〈그림 38〉 작품II의 디테일

따라서 군복과 군복 액세서리의 형태 및 디테일을 이용한 스타일은 군복의 활동적인 기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며, 자수나 트리밍, 견장, 배지 등을 화려한 배색과 함께 이용한 스타일은 군복의 장식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2. 작품구성

선행연구와 현대 패션에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한 군복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작품에 적용하였다. 특히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훈장의 의미가 많은 제작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창조하는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이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이라고 판단하여 실물 제작에 활용하였다.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으로 스윗 모델링 기법, 스윗빌 카터 기법, 스탬핑 기법, 카빙 기법, 엠보싱 기법

을 이용하였고, 염색에는 러브염법, 부분염, 전면염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의 형태는 군복의 기능성을 적용하여 독일군의 M35 지도가방, 샘브라운 벨트, 그리고 예복 조끼와 단추, 미군의 군용가방, 프랑스 육군소대장의 군복 케이프를 이용하였고, 가죽을 이용함으로써 가죽이 본래 지닌 브라운 색상으로 통일하였다. 군복의 장식성을 적용한 디테일과 문양으로는 독일 군복의 에델바이스와 철십자훈장의 문양 및 에펠렛의 문양, 영국 군사장 군복의 장미 문양, 미군 101 공수사단의 독수리문양과 플라잉 타이거즈 문양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위한 작품구성은 〈표 2〉와 같다.

작품I은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던 가방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고, 독일 군복의 에델바이스 문양과 철십자훈장 문양을 이용하여 독일 군대 품격을 가진 남성용 지갑을 제작하였다(그림 34), (그림 35). 작품II는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샘브라운 벨트와 독일군의 철십자 훈장에 달린 상수리잎 문양 형태를 이용하여 벨트를 제작하였다. 특히 철십자 문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림 39〉 작품Ⅲ의 앞면



〈그림 40〉 작품Ⅲ의 측면



〈그림 41〉 작품Ⅲ의 디테일



〈그림 42〉 작품Ⅳ의 앞면



〈그림 43〉 작품Ⅳ의 디테일



〈그림 44〉 작품Ⅴ의 앞면



〈그림 45〉 작품Ⅴ의 뒷면



〈그림 46〉 작품Ⅴ의 디테일

나치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훈장 중 하나로서, 명예와 교환하여 생명의 대가를 치른 병사의 경험을 세인에 알리는 역할을 상징한다고 한다(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작품Ⅲ은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군용 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였고, 101 공수부대 군복의 소매 문장과 부대의 구호 및 독일 공수부대 군복과 철십자 훈장의 문양을 종합하여 제작하였다(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작품Ⅳ는 1,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군복의 에펠릿과 프랑스 육군 군복의 케이프의 형태를 응용하였고, 영국 군사장(Regimental Sergeant

Major)의 소매 문장에 나타나는 장미문양을 활용하였다. 중세시대부터 사용했던 장미 문양은 영국 황실의 품격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이용하여 예술적이고 독창적으로 제작하였다(그림 42), (그림 43). 작품Ⅴ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예복의 조끼 형태와 단추를 참고하여 디자인하였고, 미군의 플라잉 타이거즈(Flying Tigers) 문장과 독일 군모에 있는 독수리 패턴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였다. 플라잉 타이거즈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중국 공군 소속의 미국인 의용대대를 의미한

다. 호랑이 문양을 이용하여 전투의 위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독수리 문양은 자유와 권위를 나타낸다(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 V. 결 론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전쟁과 같은 큰 사건들은 인류의 역사상 패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촉매 작용을 해왔다. 특히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복은 현대 패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군복으로서, 군복의 이미지를 도입한 패션 스타일을 유행시키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군복의 특징을 중심으로,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각 나라 군복과 액세서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총 5점의 현대 패션액세서리를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국내·외 문헌을 통해 군복의 역사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 패션 컬렉션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패션 컬렉션 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복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연구결과에 적극 활용하고,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이용하여 개성 있고 차별성 있는 현대 패션액세서리 5점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군복의 특징은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장교 코트와 재킷, 비행기 점퍼 등 군복의 형태를 이용하여 기능성을 강조한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가방, 벨트, 서스펜더, 방독면, 커다란 포켓 등 군복 액세서리의 형태와 기능이 부각된 스타일과 훈장, 견장, 문장 등 계급의 상징적 역할과 권위를 나타내었던 군복의 장식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군복과 군복 액세서리의 형태나 디테일의 기능성을 강조한 스타일과 군복의 장식성을 강조한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패션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복의 기능성과 장식성 특징을 작품개발에 적용하였다.

작품의 디자인 모티브를 1,2차 세계대전의 군복으로 한정하고 군복과 벨트, 가방 등 액세서리의 형태와 디테일을 이용한 기능성, 그리고 훈장,

견장, 문장 등 군복의 장식성을 주된 디자인 모티브로 이용하였다. 기법으로는 섬세하고 장식적인 조각의 부조적 표면 효과로 독특한 재질감을 얻는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선택하였다. 군복의 기능성을 이용한 형태로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복의 예복 조끼, 프랑스 육군 군복의 케이프, 독일 군복의 샘 브라운 벨트, 독일군용 지도 가방, 미국 군용 가방을 중심으로 작품 형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장식성을 이용한 문양으로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복 소매의 봉제된 독수리 문양과 에델바이스 문양, 상수리 나뭇잎으로 장식된 철십자 훈장, 그리고 같은 시대의 노르망디 미군 101 공수사단에 전용 독수리 머리 문양 및 견장을 응용하였고, 1,2차 세계대전의 영국 군사장 군복의 소매에서 봉제된 문장 형태 및 중국을 지원한 미군 플라잉 타이거스 P-40 전투기 대대에서 쓴 비행의 호랑이 문양을 활용하였다. 색상은 가죽 재료가 지닌 본연의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기법으로는 스윗 모델링 기법, 스윗빌 카터 기법, 스탬핑 기법, 카빙 기법, 엠보싱 기법 등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이용하였고, 러브염법, 부분염, 전면염 등의 염색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지갑(purse), 장교용 멜빵 달린 벨트(Sam Browne belt), 어깨 갑옷(shoulder armor), 가방(backpack), 조끼(vest)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의 기능성, 장식성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현대 패션 액세서리 제작하고, 작품 제작에 가죽 수공예 조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향수를 통한 수공예적인 감성과 견고함으로 현대인들에게 참신한 영감 제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가죽의 특성이 갖는 어려움이 있었다. 가죽 수공예 조각 전용의 가죽은 특성상 의류에 사용하는 일반 가죽이나 원단에 비해 표면이 단단하므로 재단이나 봉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의류 제작에 사용되는 가죽은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반면에 조각하기에 적합한 두께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죽 수공예 조각에 사용되는 가죽을 선택한 연구자는 연구의 방향을 패션 액세서리로 설정하였고, 가죽 조각기법의 장식효과를 한층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가죽 수공

에 조각기법 외에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현주. (2000). *밀리터리 룩에 의한 복식 디자인 연구 -군복의 장식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상희, 하지수. (2005). 현대 군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 *복식*, 56(9), 143-156.
- 김미진. (2015. 4. 27). 승마 룩과 함께 등장한 뉴 새들백. *Vogue*, 자료출처 <http://www.vogue.co.kr/2015/04/27/>
- 김주미. (1992). *가죽을 활용한 브로우치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6). *밀리터리 룩 구두 디자인 연구 -1, 2차 세계대전 미군 군복의 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2). *피혁수공예기법을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고려상감청자의 전통꽃문양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10. 7. 13).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트렌드 순환 리플레이. *Elle*, 자료출처 <https://www.elle.co.kr/article/2146>
- 배주영. (2009). *트렌치코트 이미지의 밀리터리룩 남성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자. (1994).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 변려화. (2013). *1990년 전·후 밀리터리룩의 의미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혜정. (2014). *2차 세계대전 군복을 활용한 여성의 패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영. (2015. 2. 5). 밀리터리 유행과 함께 돌아온 카고팬츠. *Vogue*, 자료출처 <http://www.vogue.co.kr/2015/02/05/>
- 신상욱. (1990). *서양복식사*. 서울: 수화사.
- 윤경은. (2004). *전투복을 응용한 현대 밀리터리룩 디자인 연구 -1,2차 세계대전 전투복의 기능적 디테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계성. (2013). *시대별 밀리터리 룩의 디자인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희. (2011).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룩 연구 및 디자인 개발. *조형미디어학회지*, 14(2), 149-158.
- 이유미. (1996). *군복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자, 이순홍. (2001). 서양 군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3), 458-484.
- 한순자. (1997). 군복에 대한 연구. *복식*, 32, 243-259.
- 홍승완. (2007). *밀리터리적 요소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3-156.
- Black, J. A. (1980).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1997). 서울: 자작아카데미.
- Boucher, F. (1987). *20,000 year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 Calasibetta, C. M. (1990).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Publications.
- Carol, H., & Mike, B. (2003). *Military uniforms*. PA: Mason Crest Publishers.
- Chris, M. (2002). *20th Century Military uniforms*. London: Barnes & Noble Books.
- Chris, M. (2011). *Military uniforms visual encyclopedia*. London: Amber Books.
- Edge, D., & Paddock, J. M. (1988). *Medieval knight*. London: Bison Group.
-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1992). *Military uniforms*. London: Dorling Kindersley.
- Hayes, A., & Maguire, J. (1997). *Uniforms of the third reich*. PA: Schiffer Publishing.
- Jonathan, M. (2006). *Weapon: A visual history of arms and armor*. NY: DK publishing.
- Montgomery, B. L. (1968). *A history of warfare* (승영조, 2004). 서울: 책세상.
- Mollo, A. (1977). *Army uniforms of world war I*. London: Blandford Press.
- Mollo, A. (2000). *The armed forces of World War II*. London: Greenwich Editions.



- North, J., & Black, J. (2015).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Uniforms of World War II*. London: Lorenz Books.
- Payne, B. (1965). *History of Custom*. NY: Harper & Row.
- Ready To Wear. (2020). *Vogue*. 자료출처 <http://runway.vogue.co.kr>
- Thompson, L. (2005). *Uniforms Illustrated No.1: U.S Special Forces of WW II*. NY: Sterling Pub Co Inc.
- Windrow, M. (2015). *Warriors: Fighting Men and Their Uniforms*. Oxford: Osprey Publishing.